

와카야마현 지정문화재 오타조(성) 수공격 제방 유적

하시바 히데요시는 덴쇼 13(1585)년에 오타조(성) 주변에 긴 제방을 단기간에 쌓아, 현재도 키노카와(강) 남쪽 평야부를 윤택하게 하는 미야이 용수를 이용해 수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제방의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못해 붕괴되지만, 신속히 복구해 물공급이 실시되었습니다. 나카쿠로다 제방 등 수공격 후에도 몇 군데에 제방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에도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사이에 서서히 유실되어 현재는 데미즈 지역에 있는 제방 뿐입니다.

잔존하는 제방 규모는 폭 약 24m, 잔존 길이 약 66m, 높이는 인접한 논과 비율을 판단하면 약 2.6m 의 대규모인 것입니다. 발굴조사에 의해 내측(오타조(성)측)에 작은 단이 있는 것, 제방 내측에 산처럼 쌓인 핵심이 있고, 내측이 높고 외측을 향해 경사지게 토사가 쌓여있습니다.

또한 제방에 사용된 흙 속에서 태국 손토 광산에서 생산된 납을 사용한 총알이 출토되고, 제방의 상면에서 에도시대 쓰레기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쇼쿠호키(織豊期)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구축된 제방 유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구축된 시기나 위치에서 이 제방은 히데요시가 오타조(성)을 물 공격하기 위해 쌓은 제방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레이와 5 년(2023)도에 와카야마현의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